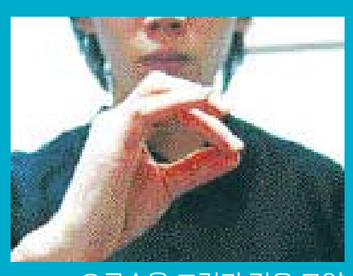
어! 동전이 어디서 나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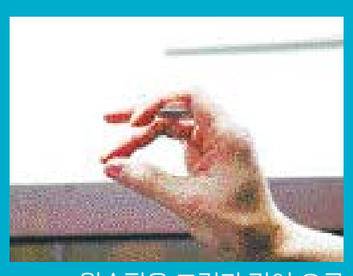
상상의 세계에 빠지다

■ '마술의 세계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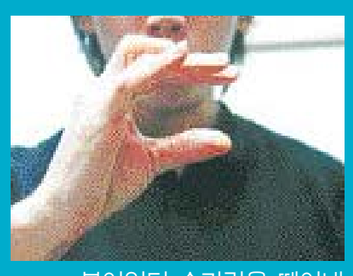
■ '윌슨팜' 배우기



1 오른손을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5 윌슨팜은 그림과 같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동전을 끼운 후 엄지와 중지를 맞붙힌 채로 상대방에게 확인 시킨다.



2 붙어있던 손가락을 떼어내서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6 그런 다음 허공에서 동전을 가져오는 동작을 취하면서 검지에 끼우고 있던 동전을 엄지 손가락으로 밀어낸다.

3 그 상태로 허공에서 동전을 가져온다.

7 그런 후 새로이 나타난 동전을 관객에게 확인시켜 준다.

4 가져온 동전을 확인시켜 준다.

Magic Show

'호기심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손끝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아무것도 없던 카드에 선명한 하트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사람도 감쪽같이 없앴다가 다시 무대에 데려다 놓는다.

'마술'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신비감을 주고 마음속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이름이다. 알면서도 속고, 몰라서도 속고… 마술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마술 동호회 '마술의 세계속으로'(http : //cafe.daum.net/magicnala) 회원들이 그들이다.

지난 2001년 결성된 '마술의 세계속으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마술 세계를 펼친 동호회다. 지금에야 이은결·최현우 등 젊은 마술사들에 의해 대중화되면서 어렵지 않게 마술을 접할 수 있게 됐지만 2000년 초만해도 마술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다.

만리장성 벽을 통과하는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보면서 넋을 놓아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술은 일상과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무엇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던 당시, 마술의 매력 아니 '마력'에 빠졌던 사람들은 8년째 동호회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2년 정도 침체기에 빠져있던 동호회는 새로 회장을 맡은 강용태(28)씨의 손에서 재탄생하고 있는 중이다. 한창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신없던 회원들도 속속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그만큼 마술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회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특히 강 회장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마술같은 인생'을 경험한 사연많은 마술가다.

동호회가 결성됐을 당시에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정모'(정기모임의 준말) 열풍이 불었다. 평소에는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친목활동을 하는 게 트렌드가 되던 때 강 회장은 '정모'를 할 수 있는 동호회를 찾다가 우연히 마술과 인연을 맺었다.

'정모'에 참석해 마술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한 강 회장은 교육담당 까지 맡아 그 실력을 키워나갔다. 각종 공연에도 나서는 등 취미가 어느 순간 일이 됐고, 지금은 대학에 출강해 강의까지 하는 교수님이 됐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는 전혀 엉뚱한 마술 세계에 살고 있다.

10여명 회원 8년째 동호회 활동

'이은결' 부럽지 않는 마술세계 펼쳐

불우이웃돕기 자선모금 공연땐 뿌듯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3~4년간 투쟁아닌 투쟁을 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끝없는 연구로 나만의 마술을 하는 게 어떤 일보다도 즐겁고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가 돼 지금의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 회장은 2004년 크리스 마스 이브날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던 불우이웃돕기 자선모금 마술공연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동호회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해 직접 공연 재료를 제작하는 등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회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던 만큼 더 특별하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입니다. 그 호기심을 풀어보려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있지만 정답이 없는, 각자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마술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정희(여·26)씨는 동호회를 통해 배운 마술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정 씨는 "호기심이 많은데 특별한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해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며 "회원들이 함께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한다"고 말한다. 학창시절에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정 씨는 지금은 소아암 환우들에게 마술을 보이며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간호사가 됐다. "마술은 정직한 취미생활입니다. 노력한 만큼 실력이 늘고 결과가 나오며, 스스로 연구하고 연습해야만 눈으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정 씨의 말처럼 동호회에서 마술의 트릭을 전부 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자신이 연구한 마술을 회원들 앞에 선보이면서 함께 토론도 하고, 트릭을 스스로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간단한 트릭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비밀 노하우를 키워가는 게 동호회 활동의 묘미다.

윤상필(27)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마술 책을 보고 독학으로 마술을 배웠다"며 "마술은 무대장치, 연기, 쇼맨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관심이 필요한 호기심 덩어리다"고 마술의 매력을 설명한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고 싶은 열정 가득한 마술사들의 모임, '마술의 세계속으로'. 이들의 손끝에서 즐거운 상상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무궁무진한 마술의 세계에서 샘솟는 호기심을 풀어내고 있는 '마술의 세계속으로' 회원들. 왼쪽부터 김민호(·홍안석·윤상필·강용태(동호회 회장)·정정희 씨.